

日本人名・地名의 한글表記에 관한 考察

曹 喜 澈

H 語 日 文 學 科

(1983. 9.30 접수)

<요 약>

일본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표기하는데 통일성이 있어야겠다는 것은 학교교육과 언론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문자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일본어의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한 표기법의 역사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일간신문의 표기 실태를 분석한 후 바람직한 일본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日本人名・地名のハングル表記に関する 考察

曹 喜 澈

H 語 日 文 學 科

(1983. 9.30 接受)

<要 約>

日本語のハングル表記において, 統一した規則性がみられず, また現行の規則すらも守られていない實狀は學校教育およびマスコミなど國民言語生活の發達という面で深刻な問題である。それで本稿は日本語を中心とした外來語表記法の歴史とその具體的は内容を調べ, また主要日刊新聞の表記實態を分析したあと, こんごの課題について考えて見た。

I. 序 論

이느 외국인이 관광 가이드 북, 홍보용 책자, 지도 등에 「Admiral LEE」, 「Admiral RI」 「Admiral RDE」등, 여러가지로 표기된 이순신장군의 이름을 보고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한글은 로마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도 또 外來語⁽¹⁾를 한글로 표기하는데 있어서도 전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日本語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이 현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여기서 日本語의

表記나 합은 주로 日本人名과 地名의 한글표기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日本의 地名인 東京(トウキョウ)을 「동경」 「東京」 「토오쿄오」 「토쿄」 「도오쿄」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나의 地名이나 人名을 이렇게 여러가지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外來語도 우리말의 일부임을 생각할 때 표기의 통일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기가 여러가지로 나타나게 된 원인은 표기법이 여러가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문교부의 현행 「外來語表記法」은 국경 교과서와 집인정 교과서 등이 이방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편수자료에 따른 표기 방법에 따르고 있지만 人名과 地名등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原音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1) 外來語의 外國語는 원래 다른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外來語表記리는 名目아래 外國語發音을 表記하고 있다.

많아 사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반도서나 신문 등의 외래어 표기는 朝鮮語學會에서 제정한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의 기준에 따르거나 1978년 韓國新聞編輯人協會에서 발행한 「報道用語集」등의 표기 방법에 따르고 있다. 또 이 외에도 신문·통신등은 이상의 표기법이 아닌 독자적인 표기법을 취하고 있는 곳도 있어 우리나라의 外來語表記는 한마디로 뚜렷한 기준없이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日本人名·地名의 한글표기의 혼란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뚜렷한 기준이 없이 쓰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896년 4월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2)에 실린 日本人名과 地名의 표기를 보자. 地名의 경우는 「神戸(コウベ)」를 「고베」, 「長崎(ナガサキ)」를 「나가사기」등 日本式音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人名인 「山縣有朋(ヤマガタアリトモ)」의 경우는 「산현 유봉」 즉, 漢字음을 日本式音인 아닌 韓國式音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 신문에 있어서 日本人名과 地名의 表記問題는 「독립신문」 이래 아직 까지도 동일을 이루지 못한 채 있다고 할 수 있다.

外國人名과 地名을 한글로 표기하는데 동일성이 있어야겠다는 것은 학교교육과 언론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 문자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本稿에서는 日本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문제를 日本語의 한글 표기를 중심으로 한 外來語表記法의 小史와 表記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고 또 主要日刊新聞의 표기실태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日本人名과 地名의 한글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II. 日本語를 중심으로 한 外來語 表記法 小史

1930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日本人名과 地名의 한글표기는 뚜렷한 기준없이 실행되어 왔으나 이 당시부터 外國人名과 地名등의 표기 현상을 통일하기 위하여 연구 노력을 계속하였다.⁽³⁾ 그리고 1933년 조

선 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60항에서는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 것과 표음주의를 쓴것을 결정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外來語表記法에 대한 원칙은 세운 것으로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 그 후 1940년에는 조선어학회에서 「外來語 表記法統一案」을 제정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1940년부터 오늘날까지 日本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에 관계되는 外來語 表記法을 年代順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1940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外來語 表記法統一案」에는,

一. 外來語를 한글로 表記함에는 原語의 綴字나 語法의 形態의 어머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表音主義로 하되 現在 使用하는 한글의 字母와 字形따라서 적는다.

二. 表音은 原語의 發音을 正確히 表示한 萬國音聲記號를 標準으로 하여 「萬國音聲記號와 한글과의 對照表(萬國音聲學協會 1938年度 修正記號에 의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는 總則과 細則 17항에서 “本案의 規定은 國語音(4)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附錄「國語音表記法」에서 「假名한글 對照表」와 「細則」에서 日本語의 한글 表記에 대해 밝히고 있다.

2) 1948년, 문교부 학술용어 제정 위원회 제20분과 언어 과학 위원회에서 「들은 말 적는 법」(外來語表記法)을 제정했다. 이것은 정부의 첫번째 外來語表記法으로 유성기호를 소리로 바꿔 적는 발음 轉寫法으로 한글 字母 이외의 글자와 부호를 사용하고 동일 모음을 거듭 적는 등 우리 맞춤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붙임」에서 「일본말은 한글로 적는 법(가나의 한글 삼기)」등을 밝히고 있다.

3) 1958년, 문교부에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공포한 두번째의 外來語 표기법이다. 1948년에 제정된 「들은 말 적는 법」이 너무 전문적이었고 字母 이외의 기호도 사용하는 등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여기에 잘 따르지 않았으므로 外來語를 일관성 있게 적기 위하여 한글 正字法에 따른 현용 24자방만을

(2) 「독립신문」(서울: 중앙문화사 1969, 영인판 제1권 제1호)

(3) 조선어학회 「外來語表記法統一案 머릿말」 1940.

(4) 日帝下에서 日本語가 國語로 되어 있다.

삼과 1음은 1기호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

4) 1959년, 문교부의 「로마자 한글화 표기법」을 실제의 표기에 적용하기 위해 「편수자료」 제1집을 발행했다.

5) 同年 10월에 외국 지명 표기에 있어서 통일을 꾀하기 위해서 「편수자료」 제2집을 발행했다. 여기서 일본의 도시명은 원치녕과 원지 받음을 표기함과 표기의 끝의 상모음은 적지 아니한다라는 원칙과 일본 지명은 Webster 사진의 발음 기호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원칙을 정하여 표기했음을 밝혔다.

6) 1960년, 「편수자료」 3집을 발행했다. 이 3집의 「로마자 한글 표기 세칙」은 편수국에서 정한 것이다, 현재 국정 및 전인정 교과서에 적용되고 있어 흔히 「외래어 표기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것은 1958년 10월에 제정한 「로마자의 한글 표기 원칙」에 많은 허용 사항이 있어 실제로 표기할 때는 곤란을 가져오므로 표기 원칙의 허용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기방법을 정한 것이다.

7) 1963년, 「편수자료」 4집을 발행했다. 이것은 「편수자료」 2집의 보완판으로 발행된 것으로 2집에 없는 인형을 추가하였고, 장음 표기의 제한 사용과 중자음 표기, 발음 파열음의 치니등이 일부 달라지게 됨으로써 편수자료집과 상충되는 조항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 인명은 과거 현존의 구분없이 카나의 한글표기법에 의하여 일본음으로 표기하고 한자의 주를 단다는 원칙을 세웠다.

8) 1965년 9월 중앙일보사에서 「외래어 표기 원칙」 및 그 「스타일 북」을 발행했다. 이것은 “특히 일본어 가나의 우리말 표기에 있어 최초의 혁신을 가져왔다. 즉, 그것은 일본어의 頭音과 連音 표기의 분리 규정의 발견·책정 실시였는데, 이것은 「報道用語集」의 「외래어 표기 세칙」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韓國新聞協會 가맹 會員社가 대부분 이를 준용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

9) 1972년, 「편수자료」 3집, 4집, 5집, 6집을 합본하여 하나의 책자로 발행했다. 이 합본을 만들 당시 3집과 4집의 상충점에 대해 참조 조치를 취하여 충유으로써 자체 모순을 극복해 놓았다.⁽⁶⁾

10) 1976년,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보도용어 통일 심의 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 주관아래 설치되어 보도용 외래어의 표기 통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되었다.

11) 1977년 2월, 문교부는 「편수자료」 3집과 4집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미비점 및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검토 위원에게 문제점 검토 및 문제 수집 작업을 위촉하였다.

12) 1977년 4월에는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로부터 「외래어 표기 통일을 위한 건의서」를 접수했고, 동년 12월에는 검토 위원으로부터 「외래어 표기법 연구 검토 결과」를 접수했다.

13) 1977년 4월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가 각 신문의 외래어 표기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보도용어집」 제1집을 펴냈다. 그 이후 1978년에 제2집을 1981년에 제3집을 발행했다. 그중 日本人名·地名에 관해서는 제1집에 日本主要地名 99개, 都道府縣 및 廳所在地名 100개, 제2집에 日本人名 297개, 제3집에 日本人名 252개와 地名 153개가 실려있다.

14) 1978년 5월, 문교부는 주요 어문편제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 개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시안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편수자료」 3집 및 4집의 표기 원칙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고, 용례 저리는 되어 있으나 그 근거 조항이 없는 등의 미비점이 있어 외래어를 일관성있게 표기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언론계 및 학계의 표기법안을 가능한 한 수용함으로써 범 국가적인 외래어 표기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⁷⁾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15) 1979년 5월, 이른바 「4대 어문 관계 개정 시안」은 마련하여 공청회를 연적이 있지만 그 후 1차 수정안을 마무리하고도 5년째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⁸⁾

16) 1980년, 한글학회에서 「한국 맞춤법 통일안」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이를 심의 문교부의 수정안이 한글맞춤법 통일안보다 별로 나은 점이 없으며 고질 경우 교육상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도 있어서 현행 맞춤법의 방법을 그대로 두되 체제, 표현, 어례등을 현대 언어생활에 맞도록 바꾸자는 학과안을 내놓았다.

새 맞춤법의 심의는 학술원에 신설된 어문분과 위원회에서 제2특회까지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여

(5) 閔畿 「日本語의 우리말 表記」 『말과 글』 16호 p.27, 한국교연기자회

(6) 문교부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 보고서」 1979.

(7) 同上

(8) 조선일보 「표준하는 말과 글」 1983. 4.10.

第三項, ハ, ビ, フ, ペ, ホ, ビヤ, ビヨ 따위는
 ㄴ의 아래에서 連音인 때는 빠, 페, 뷔, 페, 보들
 로 促音(促音)의 아래에서는 바, 비, 부, 배, 보,
 바, 보들로 적는다.

例) (1) カンバイ(乾杯)감바이 텐비요우(伝票)
 펴뵤오

(2) キップ(切符)깁부 햅피악(八百)햅바
 구

第四項, ㄴ은 글소리에서나, ア, カ, ガ, ハ, ヤ,
 フ行의 앞에서는 ㄴ받침으로, サ, ザ, タ, ダ, ナ,
 ラ行의 앞에서는 ㄴ받침으로, マ, バ, パ行의 앞
 서는 ㄴ받침으로 적는다.

例) (1) キン(金)깁 킨요우(金曜)깁오

(2) キンサン(金様)깁상 킨리(金利)깁너

(3) キンバ(金蔵)깁바 킨바이(金盃)깁바이

第五項, 促音(ツ)은 サ, タ行 앞에서는 ㄴ받침으
 로, カ行 앞에서는 ㄱ받침으로, ハ行 앞에서는 ㄴ
 받침으로 적는다.

例) (1) カッタイ(活体)갓다이

(2) カッキ(活気)갓기

(3) カッパツ(活発)갓바쓰

第六項, ウ段과 才段의 長音を 表하는 우는 ウ段
 에서는 “우”로, 才段에서는 “오”로 적는다.

例) (1) スウ(數)쓰우 리요우츄(流通)류우쓰우

(2) ノウ(腦)노오 토키요(東京)도오쿄오

但, 두 音節이상으로 된 말에 있어서 끝 長音만
 을 略音으로 함을 허용한다. 이 경우의 스우, 스우
 츄는 수, 주, 우로 적는다.

(1) キンキョウ(緊急)깁규(우)

(2) トウキョウ(東京)도오쿄오(오)

(3) グウスイ(偶數)구우수(=쓰우)

(4) リョウツウ(流通)류우츄(=쓰우)

第七項, 이미 널리 또는 오래 慣習되어 아주 굳
 어진 말은 굳어진 그대로 적는다.

例) 原音 慣習音

カマス(夙) 가마니

クツ(靴) 구두

カケスズリ(懸視) 가계수리

ナベ(鍋) 냄비

第八項, 外來語로 된 것은 本音을 떠나 外來語
 表記法에 依하여, 方音을 특히 表示할 때에는 그 地
 方의 實際發音에 依하여 적는다.

(11) 문교부 「일본말 적는법」 머리말

2. 文敎部制定「일본말을 한글로 적는 법」

이 표기법은 “한글 및 소리표의 본바랄(本質)과
 역사적 용법과 동서양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과 일
 치한 것이니 과학적 참원(眞理性)과 客觀的 適切
 性(妥當性)을 가졌다 할 것이다.”⁽¹¹⁾라고 했다. 그
 러나 실제로 가, 다, 파행의 표기를 된소리로 적고
 받잇소리 등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글자를 쓰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특기할만한 사
 향으로는 「일본의 홀로 이름씨는 다 원음대로 적는
 다」고 하고 「풍례의 우리나라에서 세익은(慣用)나
 라 이름 가운데 일본 등은 원음(原音)과 함께 사용
 함을 허용한다」고 했다. 그러던 「假名 한글 对照表」
 와 그 細則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눈, 일본말의 소리를 나타내는 “가나”를 우
 리 한글로 옮겨적음에는 다음의 “가나”한글 낱뻘들
 (假名 한글 对照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아아 이이 우우 에에 才오

카가 키기 쿠구 케게 코고

샤사 시시 스스 세세 소소

타다 차지 츄즈 테테 토토

나나 니니 누누 네네 노노

하하 히히 후후 헤헤 호호

마마 미미 무무 메메 모모

야야 (이) 그유 (이) 코오

와와 후이 우우 에에 라오

(2) 가가 키기 쿠구 게게 코고

샤사 시시 스스 세세 소소

갓다 차지 츄즈 테테 토토

바바 비비 뷔뷔 베베 보보

파파 피피 푸푸 페페 포포

(3) 카야 카야 쿠야 쿠야 쇼야

쇼야 쇼야 쇼야

(나머지도 다 이렇함)

두째 눈, 가, 다, 파행이 사잇소리(間音)로 되어
 있는 것은, 한글에서의 이어 흐름(連濁)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된소리(ㄱ, ㄷ, ㅂ)로 적는
 다.

보기) 아카(赤)아까 코타이(固體)고파이 ㄷ나(餅)

모적 キンバツ(金髮)김빠뜨 켄타이(全体)켄타이
 다만, 발음 소리(促音)ッ 아래에서는 위의 맞닿
 틀대로 적는다.

보기) カッキ (活気) 각기 カッバツ(活発)갑바
 썸 イッタイ(一体)일타이

세째 行, ン은 끝소리에서나 ア, ヤ, ワ, 力, ガ,
 八行의 앞에서는 〇받침으로, サ, ザ, タ, ダ, ナ,
 ㄹ행의 앞에서는 ㄴ받침으로 마, 바, ㅂ행의 앞에
 서는 ㄹ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1) キン(金)깁 킨쿠우(金融)깁유우
 (2) 킨세이(近世)깁세이 킨타로우(金
 太郎)깁타로우

(3) 킨마노카(金満家)깁망가 킨바이
 (金盃)깁바이

네째 行, 발음 소리(促音)ッ는 그 다음의 날내(首
 節)의 첫소리와 같은 소리로 적는다. 끝 ㄱ ㄷ ㄹ의
 것은 ㅅ으로 ㄷ ㄹ의 것은 ㅌ으로, ㄴ ㄷ ㄹ의 것
 은 ㄱ으로, ㅂ ㄷ ㄹ의 것은 ㅃ으로 옮겨적는다.

보기) (1) 카ッサイ(喫茶)갓사이 키ッサテン(喫
 茶店)갓사텐.

(2) 카ッ타이(活体)갓타이 푸ッ테이(秘底)
 홀데이

(3) 호ッ키(発起)혹기 이ッカ(一家)익가
 다섯째 行, 긴소리표(長音符号)ウ는 ㄱ ㄷ ㄹ의
 것은 ‘우’로, 才 段 아래의 것은 ‘오’로 적되, 한글
 ‘으’아래에서는 ‘오’로 적는다.

보기) (1) 구우스우(偶数)구우스으 구우쯔우(融
 通)유우스으

(2) 칸도오(感動)갓도오 토크우(東
 京)도오코오

(3) 켄우큐우 슈우큐우 츠우코오 히
 우코오

[붙임] 스자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ㅅ으로 함.

보기) (1) 키자이크(木細工)기사이구 키잔(築
 山)기상

(2) 사즈(匙)사시 고자이마스보사이마스

3. 「편수자료」 3집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이 표기법은 일본글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로
 마자 표기법에 의해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일본자 カ ガ タ ダ バ ㅂ
 로마자 ka ga ta da ba pa

예외)

① スズ ツ(tu) チ(ti) ツチ
 슌즈즈 치 즈치

② 장음을 위한 우는 같은 보음을 거듭한다.
 보기: トウキョウ도오로오

③①의 경우라도 우만 붙는 상음일세는 ‘우’로 적
 는다.

보기: スウ수우 ツ우주우

④ ン은 ‘ㄴ’을 원칙으로 하되 力, 가출 앞에서는
 〇으로 적고 마, 바출 앞에서는 ㄹ으로 적을 수 있
 다.

보기: カンヅ칸지 만가망가 산마삼마

⑤ 겹쳐져 다른 발음이 되는 말은 발음대로 적는
 다.

보기: ショ샤 히요 켄우큐우 라우로오

4. 文教部の「外來語表記法改定案試案」

1978년에 발표한 후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확
 정짓지 못하고 있는 이 표기법은 일본어를 국제음
 성기호와 대조하여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카나와 한글의 대조표

일본어 카나	국제음성기호	한 글
アイウエオ	a i u e o	아이우에오
カキクケコ	ka ki ku ke ko	카키쿠케코
サシスセソ	sa si su se so	사시스제소
タチツテト	ta tji tsu te to	타치쯔테토
ナニヌネノ	na ni nu ne no	나니누네노
ハヒフヘホ	ha hi hu he ho	하히후헤호
マミムメモ	ma mi mu me mo	마미무메모
ヤイユエヨ	ja i ju e jo	야이유에요
ラリルレロ	ra ri ru re ro	라리루레로
ワウエヲ	wa i u e o	웨이우에오
ン	N	ㄴ(ㅇ)
ガギグゲゴ	ga gi gu ge go	가기구게고
ザズゼゾ	za zi zu ze zo	자지즈제도
ダヂヅデド	da zi zu de do	다지즈데도
バビブベボ	ba bi bu be bo	바비부베보
パピプペポ	pa pi pu pe po	파피푸페포

제1항 [s] [z] [ts] 다음의 [u]는 ‘우’로 적고, [u]
 는 ‘우’로 적는다.

보기) ツシマ[tsusima]쯔시마

スルガ[suruga]스루가

スウ[su:]수 ツウ[tsu:]쥬

제2항 [ts]는 ‘ㅈ’로 적는다.

ツシマ [tsusima] 쓰시마

ツルガ [tsuruga] 쓰루가

제3항 발음(撥音) N[ㄴ]은 ‘ㄴ’으로 적되, 어말에서는 ‘ㅇ’으로 적는다.

표기) グンマ [guNna] 군마

センダイ [seN dai] 센다이

キンカザン [kiNkazaN] 킨카장

제4항 促音[ツ]는 ‘ㅅ’으로 통일해서 적는다.

표기) サッポロ [sapporo] 삿포르

トットリ [tottori] 토토리

ヨッカイチ [yokkaich] 유키아이치

5. 「報道用語集」

보도용어집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것으로 「편수자료」의 원칙에 「편수자료」의 자체 모순이나 미비점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중 일본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다.

제2항 : 일본어의 한글 표기에 있어서 거듭되는母音의 음価를 살려서 적는다. 단, 末音에서 거듭되는母音은 소리가 섞일리는 假단이 적으므로 생

략할 수 있다.

표기) 오오사카(오사카) 니이가따(니가따) 도오쿄(도오쿄오) 규우슈(규우슈우)

제10항 : 日本語 가나의 한글 표기 중 다음 3行만은 아래의表記처럼 구별해서 적는다.

○カキケケコ (頭音에서는→가기구게고

連音에서는→까끼꾸께꼬

○タチツテト (頭音에서는→다지쓰테도

連音에서는→따찌뜨테또

○パピプペポ (구별없이→빠뻬뿌페포

(註) 撥音 ‘ㄴ’은 ‘ㄴ’으로 促音 ‘ㅅ’은 ‘ㅅ’으로 통일해서 적는다.

표기) 교오포(교오포) 도오쿄(토오쿄) 산케이(산케이) 삿포르(삿포르) 홋카이도(홋카이도) 삼마꾸(삼마꾸)

이상의 5가지 표기법을 살펴 보았는데 한글 표기가 대부분이 일치하지만 力, 力, 夕, 夕, 巴, 巴行과 促音, 撥音, 長音 등의 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日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에 있어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표기법을 취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圖 1. 各表記法の 차이점

表記法	位階	力	力	夕	夕	巴	巴	ツ	促音	撥音	長音
A. 外來語表記法 統一案	頭音 連音	가 까	가 가	다 따	다 다	바 바	파 빠타	쯔	(ㅅ ㅈ) (ㅅ ㅈ)	(ㅇ ㄴ) (ㅇ ㄴ)	(오 우)
B. 들은말적논법	頭音 連音	가 까	가 가	다 따	따 다	빠 바	바 빠	쯔	(ㅅ ㅈ) (ㅅ ㅈ)	(ㅇ ㄴ) (ㅇ ㄴ)	(오 우)
C. 편수자료 3집	頭音 連音	카 카	가 가	타 타	다 다	바 바	파 파	쯔	ㅅ	ㄴ(ㅇ, ㄴ)	(오 우)
D. 외래어표기법 개정시안보고서	頭音 連音	카 카	가 가	타 타	다 다	바 바	파 파	쯔	ㅅ	ㄴ, ㅇ	
E. 보도용어집	頭音 連音	가 까	가 가	다 따	다 다	바 바	빠 빠	쯔	ㅅ	ㄴ	(오 우)

이상의 발음은 앞뒤에 따르는 음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III절에서 모두 언급했으므로 여기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의 방법으로 日人名과 地名을 표기하

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방법이 다양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상의 방법에 따라 日本의 地名을 표기해 보자.

圖 2. 各表記法の 구체적인 표기에

表 記 法 ⁽¹¹⁾	トウキョウ(東京)	サッポロ(札幌)	グンマ(群馬)	ツシマ(対馬島)
A	도오쿄(오)	삿포르	군마	쓰시마
B	도오쿄오	삿포르	군마	쓰시마
C	도오쿄오	삿포르	군마(곰마)	쓰시마
D	도오쿄오	삿포르	군마	쓰시마
E	도오쿄(오)	삿포르(삿포르)	군마	쓰시마

이상과 같이 동일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도 표기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신문에 실린 일본 인명과 지명의 표기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신문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표기방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지명이나 인명의 漢字를 日本式음이 아닌 한국식 음으로 읽기도 하므로 표기 방법은 더욱 다양해진다.

Ⅱ. 日刊新聞에서의 日本人名·地名의 表記實態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는 6개신문⁽¹²⁾(경향, 동아, 서울, 조선, 중앙, 한국)의 日本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 실태를 통해 통일되어 있지 않은 표기 현상을 살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표기법 때문에 표기 현상이 혼란되고 있으나 또 이러한 문제에 앞서 日本人名과 地名의 漢字를 日本式음이 아닌 韓國式 음으로 읽기도 하고, 漢字를 그대로 두어 읽는 사람에 따라 日本式음이나 韓國式음으로 읽게 하는 방법 등 크게 나누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漢字로만 적는 방법

이 방법은 日本人名과 地名의 漢字音을 日本式으로도 韓國式으로도 적지 않고 그대로 두어 읽는 사람에 따라 日本式음으로 또는 韓國式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東京대학」(동아) 「讀賣新聞」(서울) 「伊藤博文」(조선) 등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韓國式音인 「동경」 「꼭메」 「이등박문」으로, 또는 日本式音인 「도오쿄오」 「오미우릭」 「이토리호부타」 등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② 日本式음으로만 적는 방법

이 방법은 日本人名과 地名의 漢字표기를 하지

않고 日本式音만으로 적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센다이」(경향) 「외세타」(동아) 「구시젠」(중앙) 등이 있다.

③ 日本式音을 적고 괄호안에 漢字를 적는 방법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반면 日本式音을 표기하고 난 후 괄호 안에 漢字를 적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도오쿄(東京)」(서울) 「나고야(名古屋)」(조선) 「미에타(前田)」(중앙) 등을 볼 수가 있다.

이상의 3가지 방법 중 ①의 방법은 읽는 사람에 따라 한국식음으로도 또 일본식음으로도 읽을 수 있으므로 신문의 입장에서 보면 표기법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은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원래의 음을 모르는 독자가 이 음을 알리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②③의 표기법을 취했을 경우 일정한 기준이 있거나 또 있어도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각 신문에 표기된 일본의 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는 각양 각색으로 나타난다.

각 신문에 표기된 駐韓日本大使인 「前田利一」(マエダトシカズ)의 표기방법은 실로 다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신문의 표기를 살펴보자.

「마에다 도시카즈」(조선) 1982. 3. 10

「마에다 도시카즈」(한국) 1982. 3. 10

「마에다 도시카즈」(한국) 1982. 7. 3

「마에다 도시카즈」(서울) 1982. 3. 10

「마에다 도시카즈」(경향) 1982. 3. 5

「마에다 도시카즈」(중앙) 1982. 6. 22

「마에다 도시카즈」(동아) 1983. 1. 11

이상의 표기에서 보듯이 동일 人名을 표기하는 방

11) A. 조선어학회 「國語音表記法」 B. 문교부 「일본말을 한글로 적는 법」 C. 「해수자료」 3집 「한글화표기법」 D. 「외국어 표기법 개정시안보고서」 E. 「보도용어집」

(12) 주로 1982년에 발행된 신문은 중심으로 했다.

(13) (11)과 같음.

법이 6개 신문에서 4개나 될은 지극히 통일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일보의 경우 실수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동일 인칭에 2가지의 표기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표기법도 확실한 기준을 세워둔 후에 따른다면 괜찮겠으나 신문상에 나타난 표기법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前田利一」의 표기를 앞에서 다룬 5가지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해보면

- A. 「마에다 도시카즈」
- B. 「마에다 도시카즈」
- C. 「마에다 토시카즈」
- D. 「마에다 보시카즈」
- E. 「마에다 도시카즈」

와 같이 나타난다. 이상의 표기만으로 볼 때, 한국일보의 2가지 표기는 이상의 아무런 방법에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에 따라 표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동아일보는 분교부안에 따르고 있고 나머지 4개 신문⁽¹⁴⁾은 「보도용어집」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아일보만이 분교부안에 충실히 따르고 있고, 한국일보⁽¹⁵⁾를 포함한 나머지 4개 신문(경향, 동아, 중앙, 조선)은 대체로 「보도용어집」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많은 예외 현상도 볼 수 있다. 다음에 「보도용어집」의 기준과 달리 표기된 예를 살펴 본다.

◦ 長壽(가득되는 母音의 音価를 살려서 적는다.)

구시켄요코(クシケンヨウコ)(한국)

와지마 코이찌(ワジマコウイチ)(한국)

아마테라스 오미카미(アマテラス オオミカミ)

(한국)

◦ 滿濁音(カ・タ行은 頭音에서는 ‘가’ ‘다’로 連音에서는 ‘까’ ‘따’로 읽는다)

아지노모토(アジノモト)(한국)

가와카미(カワカミ)(중앙)

히나찌(ヒナチ)(조선)

◦ ツ(쓰)

킨테츠(キンテツ)(경향)

(14)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15) 한국일보도 「보도용어집」의 기준과 다른 것이 많으나 기본적으로는 따르고 있다.

(16) 필호안의 설명부분이 「보도용어집」의 기준이다.

(17) 南廣祐外, 「標準國語發音辭典」, p. 55, 精神文化研究院 1982.

(18) 鄭龍桓 「도오코는東京으로쓰고 ㅎ경으로 읽어야」 『말과 글』 14호 p. 31 한국교원기사회 1982.

미쯔비시(ミツビシ)(조선)

등을 통해서 볼 때 각신문사는 「보도용어집」의 기준과는 다른 표기법을 쓰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용집」의 기준에 따르기도 하고 또 독자적인 표기법등을 쓰기도 하여 신문에 나타난 日本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는 더욱 혼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니코(ニコウ)>(경향)와 같이 促音を 생략하기도 하고, <남아오카(ナオカ力)>(한국)와 같이 鼻音を 표기한 경우도 있다.

V. 「東京」—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東京(トウキョウ)」를 우리말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토오쿄오」「토쿄」「도오쿄」등 동일 人名이나 地名을 표기하는 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표기 방법의 문제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東京」을 우리 속인 「동경」으로 읽고 적을 것인가, 아니면 일본음인 토오쿄오로 읽고 적을-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면 먼저 日本人名과 地名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자체의 의견을 인용해 본다.

1. 韓國式音으로 읽어야 한다.

◦ 련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특히 같은 漢字文化圈內的 固有名詞에 原音主義를 취한 것은 큰 잘못이다.

중국에서 韓國이나 日本의 地名을 中國漢字音으로 발음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中國이나 日本의 人名·地名을 漢字로 적고 韓國漢字音으로 읽어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신문·잡지 그 밖의 서적이나 사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도 이 原音主義는 是正되어야 한다.⁽¹⁷⁾

◦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人名·地名을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왔다. 이것은 漢字圈 3국이 각기 自國語 漢字音으로 상대국의 人名·地名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만이 왜 現地音이나 注音符號를 轉寫하여야

하는가. 아무래도 生硬한 日本發音보다는 일본의 지명·인명도 漢字表記가 대부분이며 그것을 漢字음으로 읽고 漢字로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쉽고 편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⁸⁾

2. 日本式음으로 읽어야 한다.

○ 외래어 표기의 원칙에 있어서는 당해국의 표음유에 따른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한 것이다. 설혹 상식을 떠나서도 나당히 이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외국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고 읽는 방법도 우리말식으로 읽을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지가 오래 되었고 한자 사용이 어느정도 체질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구시대 분들이 한자의 중국음이나 일본의 음이나 독법을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이나 지명을 우리식으로 읽게 되고 또 이러한 의식이 습관화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원칙에 어긋난 일은 원칙에 맞게 시정하여야 할 일이지 잘못이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변히 알면서도 이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크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¹⁹⁾

이상의 주장에서 보듯이 日本 人名과 地名을 한국식 음으로 읽자는 주장은 발음하기가 쉽고 또 조음은 감정적인 면이 없지 않은 일본도 日本式음으로 우리의 人名과 地名을 읽고 있으므로 우리도 우리식 음으로 日本 人名과 地名을 읽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人名이나 地名등의 固有名詞는 어느 나라이건간에 原音으로 불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北九州의 崔呂華 목사가 자기의 이름을 일본식 음인 「사이쇼오카」로 부른 NH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崔목사의 주장이 당연하듯이 우리 또한 日本의 人名과 地名을 관용적으로 우리 음으로도 읽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原音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또 “生硬한 日本發音”이라고 했지만 학교교육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거의 대부분의 日本 人名과 地名을 原音으로 읽고 적으므로 젊은 세대는 日本式음에 더욱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奈良(ナラ)」 「札幌(サッポロ)」 「神戸(コウベ)」 「名古屋(ナゴヤ)」 등의 地名이나,

「鈴木(スズキ)」 「中曾根(ナカソネ)」 등의 人名을 읽는데 있어서 「나랑」 「찰황」 「진호」 「멍고옥」 「영옥」 「중중근」 등 한국식 음으로 읽기 보다는 「나라」 「삿보르」 「고우베」 「나고야」 「스즈끼」 「나카소베」 등 日本式 음으로 읽는데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日本 人名과 地名을 읽고 적는데 있어서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무작정 한국식 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지명 인명파 마찬가지로 原音을 따라 읽어야 할이 옳은 것이다.

Ⅶ. 結 論

外來語와 外國語는 다른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外來語表記(法)」이라는 이름아래 外國 人名과 地名을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잘 통일이 되지 않은채 같은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日本의 人名이나 地名은 우리말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이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漢字를 한국식 음으로 읽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이래로 아직까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日本 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문교부는 문교부대로, 학회는 학회대로 또 보도기관은 보도기관대로의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지만 ‘力’·‘夕’行과 促音·撥音등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 신문에 나타난 표기를 조사해 보면 뚜렷한 기준 없이 표기한 것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日本 人名과 地名을 한글로 表記하는데 있어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각 십여개의 인명파 지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原音인 日本音으로 읽고 적어야 하며, 또 日本音으로 적는데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관계 당국에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한 통일된 표기법을 만들어 같은 인명파 지명을 표기할 때 같은 표기가 되도록 해야겠다. 1984년 1월에는 학술원의 부설 기관으로 국어 학자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국어

(19) 이강로 「漢字圈이라도 表記原則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과 글』 14호 p. 30 한국고결기자회 1982.

(20) 地名으로는 「공정」 「경도」 「구주」 「북해도」 「대마도」, 人名으로는 「이동백산」 「홍선수필」 「덕령가장」 「소서행장」 등은 들 수 있다.

인주소(가칭)가 설치되어 표준말, 맞춤법, 외래어 표기와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한자교육등 이문정책 전반에 관해 현안은 연구하게 된다고하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에 있어서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교부가 1978년에 또 한글학회가 1980년에 자기 수정안을 내어 놓았다. 아직 양쪽 모두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서로 협력하여 범국가적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해야겠다.

參 考 文 獻

1. 장재도, 『국어의 갈길』 문경출판사 1981.
2. 米昇右 『맞춤법과 校訂의 實際』 語文閣 1982.
3. 金敏洙 『國語政策論』 高麗大學校出版部 1983.
4. 韓國新聞編輯人協會 『報道用語集』 1~3집 1977-1981.

5. 南廣祐外 『標準國語發音辭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 俞萬根 『外來語의 國字表記와 그 發音』 『語文研究』 27號, 一潮閣 1980.
7. 文敎部 「外來語表記法改定案試案報告書」 1978.
8. 朝鮮語學會 「外來語表記法統一案」 1940.
9. 文敎部 「뜯은말 쓰는 법」 1948.
10. 文敎部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1959.
11. 文敎部 「뫼수자료」 1~4집 1959-1963.
12. 「독립신문」(서울: 중앙문화사 영인판 제1권 제1호) 1969.
13. 閔縵 「日本語의 우리말表記」 『달과 글』 16호 1982.
14. 鄭龍起 「도모코는 東京으로 쓰고 동경으로 읽어야」 『달과 글』 14호 1982.
15. 이강로 「漢字圈이라도表記原則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달과 글』 14호 1982.